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HERE IS THE BEEHIVE

가제: 내 남자친구의 아내

저자: Sarah Crossan

출판사: Bloomsbury

발행일: 2020년 여름 예정

분량: 211페이지

장르: 일반소설



* 2016년 베스트셀러 <One>으로 카네기 영국 문학 상(Carnegie Medal), 청소년 도서 상(the YA Book Prize), 아일랜드 올해의 어린이책(the CBI Book of the Year Award), 클리파 시인 상(the CLIPPA Poetry Award)을 수상한 영국 십대 소설의 거장 Sarah Crossan이 처음으로 선보인 성인을 위한 소설

*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에서 치열한 옥션 &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프리오프로 계약, 총 8개국에 판권 계약된 화제의 도서

* “작품 속 모든 단어를 신중히 썼으며, 모든 문장이 정교한 대단히 유혹적인 작품이다.” -베스트셀러 <나우 이즈 굿>의 저자, 제니 다우넘(Jenny Downham)

애나와 코너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적어도 둘 사이에서는 그런 셈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낯을 피해 은밀히 호텔에 드나들기도 하고 주말이면 교외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떠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 다시 두 사람만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각자 가정이 있었던 애나와 코너는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정기적으로 통화 내역과 문자 내역을 지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둘만의 비밀스럽고 아찔한 내연관계는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 되었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한 둘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인지 이들의 불륜 행각을 아는 사람은 코너와 가장 가까운 친구인 마크 뿐이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서로의 가정을 저버릴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코너는 이따금씩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며 애나와의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하곤 했다. 물론 그녀의 연락에 눈독듯이 사라져버릴 결심이었다. 애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 두 사람이 내리지 못한 결정을 대신 하늘이 내려주기라도 한 듯 애나는 생각지도 못한 비보를 전해 듣게 된다. 자전거 사고로 코너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애나는 이 슬픔을 어디에도 이야기 할 수 없었다. 애나는 유일하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마크를 찾아가 위로 받고 싶었지만 그가 애초에 이 일에는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점점 애나와 거리를 두었던터라 더더욱 답답한 시간들만 이어질 따름이었다.

아무리 속으로 삭히려고해도 삭혀지지 않는 깊은 슬픔을 앓던 애나는 고민 끝에 결국 이 상황을 똑같이 겪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절대 만나서는 안될 사람을 찾아간다. 그녀가 찾아간 사람은 바로 같은 시간 코너를 동시에 잃게 된 코너의 부인 레베카였다. 애나는 레베카에게 자신을 장례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이 방문이 남편의 죽음을 겪었을 그녀를 위로하기 위한 상조 회사의 서비스라는 핑계를 댈다. 레베카는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던 마크가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의아해하면서도 그런 그녀를 반긴다. 그렇게 만나게 된 둘은 이후로도 종종 만나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누며 가까운 사이가 된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애나는 고민 끝에 결국 남편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애나는 이 엄청난 관계의 비밀을 레베카에게도 말할 수 있을까? 소설은 이에 대해 열린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독특한 형식을 통해 이 모든 여정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그려나간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쓰여지는 문장의 형식과 전혀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인물들의 감정이 흘러지면 흘러지는대로 간격을 두어 행간이 만들어내는 시차가 더더욱 소설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한다. 마치 만화 속의 글자처럼 자유롭게 묶이지 않은 문장의 흐름을 따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전개되는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독자들은 한 인물의 입장 뿐 아니라 여러 인물의 시선을 통해 같은 상황도 달리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자칫 통속적일 수 있는 소재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정교하고 섬세한 문장으로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예리하게 포착하며 불편하지 않게 풀어 나간다.

<저자 소개>

Sarah Crossan은 아일랜드 어린이책 수상자이며, 2012년 Bloomsbury에서 출간된 첫 청소년 소설 <THE WEIGHT OF WATER>의 저자이다. 이 책으로 불모지와 같던 영국의 청소년 작품 시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고, 저자의 평판과 판매율은 거듭 성장하고 있다.

<해외 판권 계약 현황>

UK: auction won by Alexandra Pringle, Bloomsbury

US: pre-empted by Judy Clain at Little, Brown

Denmark: sold to Marie Vinter at Rosinante

France: auction underway

Germany: auction won by Helga Frese-Resch at Kiepenheuer & Witsch

Italy: auction won by Edoardo Brugnattelli at Mondadori

Netherlands: pre-empted by Juliette van Wersch at Signatuur

Sweden: auction won by Johanna Daehli at Sekwa

제목 : SEA OF LOST GIRLS

가제 : 사라진 아이들

저자 : Carol Goodman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20년 3월 3일

분량 : 336페이지

장르 : 스릴러



- * “반전을 듬뿍 안겨주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 - 「보스턴 글로브」
- * “생생한 분위기를 담아내는 스릴러의 전문가” - 「덴버 포스트」
- *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를 때 솟아나는 전율을 맛깔나게 그려낸다” - 전작 『The Night Visitors』에 대한 서평, 「퍼블리셔스 위클리」

명문 사립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집에서 자고 있던 테스는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놀라 잠이 깬다. 아들 루디는 몇 개월 전부터 주인공을 맡게 되어 열심히 준비해온 연극에서 대망의 첫 공연을 마치고 떠들썩한 파티에서 그간의 긴장을 다 풀고 있을 것이 자명했다. 평소 하나뿐인 아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것이 집착의 경계를 오락가락한다는 사실을 테스 자신도 잘 알고 있기에, 엄마가 객석에 보이면 더 떨릴 것 같다는 아들의 간청을 따라 꼭 참고 가보지도 못했다. 대신 교장이 보내온 루디의 커튼콜 사진을 보면서 공연을 잘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문자를 보내다니?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테스는 마음을 졸이며 루디의 다음 메시지를 기다렸다. 10분쯤 지나 루디는 ‘데리러 와줘’라는 짤막한 문자를 보냈다. 테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루디가 있다는 ‘안전지대’로 서둘러 차를 몰았다. 학교 근처, 바닷가 절벽에 우뚝 서 있는 오랜 저택이 목적지였다. 루디는 혼자 조용히 생각할 일이 있을 때만 찾는 그 절벽에 왜 오늘 같은 날 가게 된 것일까. 테스의 머릿속엔 궁금증으로 투성이었다.

새벽 3시 반이 다 되어 도착한 테스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얇은 옷으로 고스란히 맞으며 벌벌 떨고 있는 루디를 발견한다. 여자친구 릴라와 다뤘냐는 물음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 릴라는 볼 때마다 끌어안아주고 싶을만큼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공부에 크게 열정도 없고 만사에 심드렁한 루디와 달리 모든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유지하고 항상 밝은 미소로 모두의 사랑을 받는 릴라가 루디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루디 역시 그 좋은 영향을 듬뿍 받았기 때문이다. 루디는 담배도 끊고,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릴라를 따라 몸에 나쁜 음식은 되도록 멀리하고, 학교 육상팀에도 자신해서 들어가 틈날 때마다 운동도 시작했다. 이번 학교 연극에 참여한 것도 릴라가 연출을 맡은 덕분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고 기숙사 생활을 하느라 집을 항상 그리워하던 릴라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편하게 쉬라는 테스 부부의 제안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테스는 루디와 릴라가 틈틈이 집에 찾아와서 요리도 하고 밀린 빨래도 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함을 느꼈다. 그런데 이 새벽에, 그것도 첫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루디가 혼자 절벽 위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

다는 건 릴라와 다툼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리 없었다. 테스는 일단 루디를 집으로 데리고 온 뒤 페이스북으로 릴라의 최근 근황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같은 학교 선생님이로 근무 중인 테스에게는 학생들과는 SNS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었지만, 그 철칙을 깨게 만든 사람 역시 릴라였다. 페이스북을 통해 릴라와 함께 있는 루디의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던 테스는, ‘아이스 버진33’이라는 이상한 아이디가 릴라의 최근 포스트마다 댓글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만 루디와 릴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특별한 징후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막 동이 틀 무렵 테스는 교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는다. 바닷가 절벽 아래에서 사체가 한 구 발견되었는데 릴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릴라가 발견된 곳은 테스가 루디를 데리러 갔던 바로 그 절벽이었다. ‘한 번씩 너무 화가 나면 눈앞도 머릿속도 새카매진다’던 루디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지만, 설마 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테스는 남편 하몬까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에 또 다시 기겁한다. 테스가 루디를 데리러 가서 집에 돌아오기까지 50분간 하몬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문제가 또 있었다. 18년 전, 테스 역시 이 학교의 전도유망한 학생이던 시절에 벌어진 사건이, 수치스러워 영원히 지워버리려고 애써온 과거가 릴라의 죽음으로 인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릴라와 3주 전부터 ‘아이스 버진 33’이라는 아이디로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나눈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교사였다. 그리고 릴라의 초청으로 사고 당일 연극을 보러 찾아온 것이 밝혀진 그 남성은 바로 테스의 과거를 후회와 치욕감으로 물들인 자, 루디의 친부 루터였다.

이 학교의 졸업생이기도 한 테스는 재학 시절, 학교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담당 교사였던 루터와 처음 만났다. 의욕 넘치고 호기심 왕성한 테스의 재능을 알아본 루터는 서서히 선을 넘어 테스에게 손을 뻗기 시작했다. 남다른 능력을 칭찬해주고,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편집장 자리에도 올려준 루터의 신임에 잔뜩 들뜬 테스는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처 눈치채지 못했고, 마침내 그 일그러진 욕망이 드러났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 18세 어린 나이에 임신한 테스는 부모님이 알면 사태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다른 도시로 도망치듯 떠나 혼자 루디를 낳고 대학에 다녔다. 테스는 루터가 과거를 모두 잊고 잘 살고 있는 자신을 추적했으며, 루디의 여자친구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또 다시 인생을 망치려 했다고 확신한다. 루디도, 남편도 다 살인자로 억울한 의심을 받게 하는 것으로 루터의 계획은 성공한 것일까? 하지만 조사가 이어질수록 테스는 또 한 명의 괴물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는다. 치밀한 구조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롤 굿맨(Carol Goodman)은 2003년 해밋 상을 수상한 『The Seduction of Water』와 2018년 메리 히긴스 클락 상을 수상한 『The Widow's House』 등 20편 이상의 소설을 썼다. 출간된 책들은 현재까지 16개 언어로 번역됐다. 뉴스쿨과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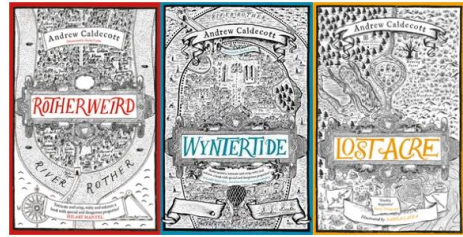
제목 : ROTHERWEIRD BOOK SERIES

가제 : 로더위어드 시리즈

저자 : Andrew Caldecott

출판사: Jo Fletcher Books

장르 : 판타지



- * 체코, 러시아, 폴란드 판권 계약 / 1권 9만 부 판매, 3권 하드백 베스트셀러 16위 진입
- * “역사와 비극, 코미디가 하나로 결합된 정교하고 신선한 이야기. 위트와 위엄이 동시에 넘친다. 그 어떤 책과도 다른, 특별하고 위험한 책” – 맨부커 상 2회 수상자, 힐러리 맨텔(Hilary Mantel)

1권: 로더위어드(ROTHERWEIRD) / 출간일: 2019년 3월 20일, 분량: 340페이지

과거와 단절되고 세상 다른 곳들과 똑 떨어진 영국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 ‘로더위어드’에 낯선 이방인 두 명이 찾아온다. 학생들에게 근대사를 가르칠 교사로 채용된 조나 오블롱,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한 베로날 슬릭스톤 경이 그 주인공이다. 1800년 이전의 역사나 지역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법으로 아예 금지되어, 정부가 용인하는 시대의 역사만 가르칠 수 있었지만, 로더위어드만큼은 이 규칙으로부터 예외라는 것을 오블롱은 알게 된다. 로더위어드에는 경찰도 없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도 없고 주교도 없었다. 이탈리아 양식으로 지어진 높은 탑들이 숲처럼 빼곡하고 그리스 풍으로 꼬불꼬불 이어진 좁고 멋진 길 등 세계 곳곳의 멋진 건축 양식은 전부 가져다 놓은 듯한 멋진 풍경이 그림 같이 이어지는 곳이었고 최첨단 과학기술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부터 제정된 오랜 법률에 따라 외부와 격리되어 마치 섬과 같았던 로더위어드의 빈 대저택을 사들인 슬릭스톤 경이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복구하기 시작하면서 수백 년 동안 묻혀 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오블롱은 군사 용도로 활용되는 고도의 기술이 마을의 북쪽 탑에서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이 아닌 로더위어드 출신의 천재적인 학자들의 손에서, 출처가 모호한 연구 지원금에 의해 탄생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란다.

3부작 시리즈의 1권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식물을 길러내는 천재적인 정원사 헤이맨 솔트와 물리학자 빅센, 천문학자 페시, 그리고 마을에 딱 하나 있는 골동품 주인의 조카인 오렐리아 등 개성 넘치는 인물들을 통해 로더위어드의 독특한 풍습과 분위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슬릭스톤 경의 저택 공사로 시작된 기묘한 사건들로 인해 마을 전체는 물론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한 팀이 되어야 하는 이들의 첫 만남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1558년, 당시 튜더 왕가의 여왕은 비범한 두뇌를 가진 열두 명의 영재 아이들을 로더위어드로 쫓아내는 결단을 내렸다. 누군가는 ‘황금 세대’라 칭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악마의 씨앗’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이 남다른 아이들로부터 시작된 로더위어드에서 450년간 축적된 비밀은 이제 엄청난 재능과 과학,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서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2권: 윈터타이드(WYNTERIDE) / 출간일: 2019년 5월 23일, 분량: 340페이지

로더워어드의 시장 시드니 스노켈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선거에 내몰려 편안하게 누리던 권력을 다 잃을 위기에 처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보전하려는 그에게 도전장을 내민 헨지스트 스트리머는 로더워어드에서 꽤 영향력이 높은 약제상들의 지지를 받아 오직 자신만이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며 절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여기에 스노켈과 스트리머 모두 시장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오렐리아까지 후보로 나선다. 비슷한 시기, 마을에서 벌어진 볼리소 교수의 장례식에서 알 수 없는 경고가 터져 나온다. 그가 죽기 전에 이미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미스터리한 장례식을 통해 볼리소 교수는 참석한 친구들에게 암호와 상징, 빛으로 마을에 다가올 불길할 사태를 예견한다. 이에 로더워어드에는 어린 아이들이 오래 전부터 장난 삼아 흥얼거린 노래 속의 악마 ‘거온 윈터’가 곧 다시 깨어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마을의 전령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는 등 사방에서 볼리소 교수가 암시한 사태가 현실로 드러나고 먼 옛날, 로더워어드가 처음 만들어진 시대에 마법사였다는 거온 윈터가 부활하려 한다는 공포로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일 때,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손을 맞잡는다. 문제는 이들이 맞서려는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자신들의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3권: LOST ARCE / 출간일: 2023년 6월 7일 예정, 분량: 496페이지

2권에서 축적된 예언과 징조대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마법사 거온 윈터가 마침내 부활한다. 베로날 슬릭스톤이 재건한 대저택에 자리를 잡은 그는 놀라운 카리스마와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누그러뜨린다. 급기야 고대 동전을 통해 선지자들이 오래 전부터 예언한 괴물들이 나타났을 때 강력한 힘으로 괴물들을 물리치는 큰 공헌을 하자 사람들은 그가 악마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한다. 하지만 윈터가 로더워드에 온 진짜 목적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스파이를 여러 명 고용해서 마을 곳곳에 침투시켜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잔혹한 고문 전문가를 돈으로 매수하고 충성스러운 하인까지 완벽하게 마련한 그가 로더워드를 손에 거머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다음은? 철저히 감춘 겉모습 뒤로 그가 지난 500여 년의 시간 동안 계획한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마을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뿔뿔 뿜었던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적과 상대하기 위해 다시 나선다.

<저자 소개>

앤드류 칼데콧(Andrew Caldecott)은 왕실 고문 변호사로 주로 미디어 관련 법을 다루어 왔다. BBC, 가디언, 나오미 캠벨 등의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극작가, 소설가로도 활동해 왔다.

제목 : THE DEATH OF BASEBALL

가제 : 라파엘과 클라이드

저자 : Orlando Ortega-Medina

출판사: Cloud Lodge Books

발행일: 2019년 5월 21일

분량 : 475페이지

장르 : 블랙코미디/문학



★ 「타임 리터러리 서플먼트」 여름 추천 도서로 소개

★ “깊은 불안감을 건드리는 아름다운 소설. 작가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생각과 충동을 비추는 거울을 들고 있다.” – 「The Irish News」

마릴린 먼로의 숨이 끊어진 직후, 그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갓 태어난 자신의 몸에 흘러 들어왔다고 굳게 믿는 클라이드와 제임스 던의 영혼이 평생 자신이 가야할 길을 이끌어 왔다고 믿는 라파엘은 LA에서 운명처럼 만난다. 자신의 정체성, 가족과 신, 스스로 세상에 어떤 존재여야 하고 지금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가에 관한 탐색은 돌을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내몬다.

1962년 8월 5일 자정을 갓 넘긴 시각에 벌거벗은 채로 숨을 거둔 마릴린 먼로의 넋이 마침 그 시각에 엄마의 자궁에서 갓 빠져나온 자신에게 들어왔다는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클라이드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리틀 야구단에 들어가서 두각을 나타내던 무렵, 이미 클라이드의 삶은 조금씩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밤마다 온 몸에서 위스키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대문을 발로 뱅뱅 차던 아버지는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엄마와 클라이드에게도 손을 댔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욕설을 퍼붓는 일도 다반사였던 아버지는 엄마를 늘 공포로 벌벌 떨게 만들었다. 열 살이 넘어 덩치가 제법 커진 클라이드는 그런 아버지를 몸으로 막아서려고 했지만 엄마는 매번 울면서 그러지 못하게 막았다. 그렇게 억눌린 분노는 방과 후 집으로 향하던 어느 오후,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대상에게 폭발하고 말았다. 친한 친구와 사촌 케빈이 집에 가는 길에 으스스한 숲으로 클라이드를 데리고 간 날 벌어진 일이었다. 친구는 난데없이 누구 성기가 더 큰지 비교해 보자며 바지를 훌렁 벗었고 똥다고 거절하는 클라이드의 말에 분노했다. 그러더니 케빈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줬는지 실실 웃으며 이야기하고는 클라이드에게도 어서 무릎 꿇고 앉아서 똑같이 하라며 욕박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클라이드의 기억에서 거의 지워졌다. 주변에 있던 큰 돌을 들어 실실 웃어대는 친구의 머리통을 갈겼고 온통 피투성이가 된 친구는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것 정도만 기억날 뿐이었다. 폭행으로 법정에 선 클라이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은 날, 상담실에서 나오던 잘생긴 남학생과 그로부터 10여년 뒤 LA에서 다시 마주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 날 라파엘 역시 법원 명령에 따라 마지막 상담을 받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라파엘의 죄목은 절도였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LA에서 자란 라파엘은 어릴 때부터 주변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로 흘러가는 마음과 감정 때문에 혼자 고투를 벌였다. 독실한 정통 유대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뛰어난 두뇌와 모두가 감탄하는 천재적인 예술적 감각을 일찍부터 드러낸 라파엘은 어른들로부터 ‘신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너를 보냈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반짝이는 재능과 달리, 속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가 불길처럼 솟아났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물건을 훔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강렬한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라파엘은 결국 절도죄로 법정에 서고, 크게 실망한 부모님과 랍비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로 보내진다. 사막 근처 소박한 마을에서 사는 이모, 사촌들과 한동안 함께 살면 비뚤어진 내면이 다시 옹골게 자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어른들의 기대로 평온하다 못해 황량한 그곳에서 숨죽여 지냈지만, 더 큰 비극이 라파엘을 덮친다. 예루살렘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간 사이, 이모네 집에 큰 불이 나 이모와 사촌 하나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얼마 후, 남은 사촌들마저 시나이에서 벌어질 이집트와의 전투에 끌려가다시피 참가하게 되자 라파엘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스라엘로 향하기 전, 이모 집에서 담배를 피고 불이 덜 꺼진 공초를 두고 나온 것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화재도 사촌들의 징병도 라파엘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었지만 마음에 큰 상실감과 상처가 남은 그는 무엇이 올바르게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끝이 없는 방황을 시작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발버둥치던 클라이드와 라파엘 각각에게 마릴린 먼로와 제임스 딘은 버티고 살아갈 힘을 준 작은 불빛이었다. 그러나 1982년, 늘 좋아했던 영화를 직접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로스앤젤레스에 돌아온 라파엘과 마릴린 먼로 복장으로 거리를 헤매던 클라이드가 만나면서 그 불빛은 서서히 강렬한 폭발로 변화한다.

영혼의 환생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로 금세 친해진 두 사람은 여전히 마음 한 켠에 남은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려 애쓰면서 함께 환생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에서 시작된 종교, 복수, 그리고 욕망에 관한 고민은 클라이드가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마음을 굳히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간다. 큰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자, 함께 은행을 털기로 한 것이다. 마릴린 먼로와 제임스 딘의 모습으로 변장한 두 사람의 충동적이고 무모한 시도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저자 소개>

올랜도 오르테가 메디나(Orlando Ortega-Medina)는 UCLA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사우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단편집 『Jerusalem Ablaze』는 영국 2017년 폴라리 데뷔 소설상 결승에 올랐다. 위 소설이 장편 데뷔작이다.

NON-FICTION

제목: INCONSPICUOUS CONSUMPTION

가제: 사소한 소비가 파괴하는 환경

저자: Tatiana Schlossberg

출판사: Grand Central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8월 27일

분량: 288 페이지

장르: 환경

tatiana
schlossberg
inconspicuous
consumption
the environmental
impact you
don't know
you have

* 폴란드 판권 계약

- * “우리의 아주 사소한 선택이 환경에 얼마나 지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 - 「뉴욕타임스」
- * “복잡한 이슈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분리하고, 유머와 위트를 더해서 독자가 무기력함보다 할 수 있다는 힘을 느끼도록 쓴 책” - 「북리스트」

환경 오염이나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낱알이 보여주는 뉴스나 정보를 접하면 두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온다. ‘이대로는 안돼, 뭔가 대책이 필요해, 큰 일이야.’ 라는 진심 어린 우려, 답답함과 더불어 한없는 무기력감도 몰려온다.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분명히 지금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체념하게 되기 일쑤다. 뉴욕타임스 과학, 환경 섹션에 글을 기고하던 시절 저자 역시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털어 놓는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막연함이 주는 두려움은 사실을 명확하게 알수록 자연히 흩어지게 마련이다. 저자는 과학적인 분석이나 실태 고발에서 벗어나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이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주목한다.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들, 별다른 고민 없이 선택하는 물건들과 취미생활이 알고 보면 모두 환경에 큰 흔적을 남긴다는 것,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환경 보호를 위해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거나 엄청난 무언가를 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그저 평소에 늘 하던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 훨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이 책에서 상세히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종이로 만든 책이나 실물 DVD를 사는 것보다 전자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환경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줄이는 것이 폐기물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디지털 기기를 작동시키는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를 때 대부분 편의점에 들러 생수 한 통 사서 마시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수도물의 안전성을 믿지 못해서 생수를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 통에 담긴 물을 수원지에서 퍼 올리고 플라스틱으로 물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을

담고 세계 각지로, 그래서 거리의 편의점이나 대문 앞까지 전달되기까지 소요되는 에너지는 다 어디에서 올까?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심각성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치 않게 매일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집약적인 생활’이 지구 환경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하는 넷플릭스 영화나 즐겨먹는 햄버거, 저렴한 캐시미어 스웨터 같은 일상 용품들이 지구 어딘가에 거대한 환경적, 인적 비용을 치르고 만들어진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터넷과 기술, 식품, 패션, 연료까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알려준다. 심각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머를 잃지 않는 문장으로 저자가 이런 정보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 한 가지다. 환경 오염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어떻게 하면 내리막길로만 내달리는 환경 파괴를 늦추고 혹은 역행시킬 수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피부에 와 닿도록 설명하고 절망감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기술과 인터넷

서론

물리적 인터넷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일

실리콘밸리: 유독 폐기물 처리장? 여러분이 선택할 일

기술을 위한 채굴

유희 전력

우리가 내던진 것

음식 (총 6장)

패션 (총 6장)

연료 (총 8장)

결론

<저자 소개>

타티아나 솔로스베르크(Tatiana Schlossberg)는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글을 써온 저널리스트다. 「뉴욕타임스」, 「메트로」, 「애틀란틱」, 「블룸버그 뷰」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LOVE YOURSELF LIKE YOUR LIFE DEPENDS ON IT

가제 : 나는 나를 사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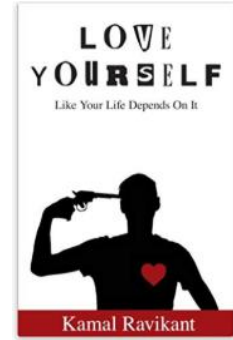
저자 : Kamal Ravikant

출판사: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발행일: 2012년 7월 6일(초판)

분량 : 6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판권 계약

★ 자가 출판으로 처음 발행된 후 3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2011년 여름, 실리콘밸리의 한 업체가 도산했다. 그 회사의 대표로 10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매진했던 저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말 그대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을 만큼 좌절하고 마음이 텅 비어버린 상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겨내 보려고 노력해보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그 어두운 절망이 최고조에 이른 어느 순간, 저자는 침대에서 기어 나와 비틀대며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노트를 펼친 후, 펜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에 글자를 새겨 넣는 심정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기록했다. “오늘, 나는 나를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 내가 진심을 다해 깊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대할 것이다. 내 생각, 행동,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하는 경험들, 내 의식이 살아 있는 모든 순간에 나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주문을 외듯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문구를 씹듯이 떠올린 후 저자는 마치 어둠의 방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희망과 위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확신은 없었다. 이런 중얼거림 혹은 명상이 뭔가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확신 없이, 그리고 정말로 그 말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믿음도 없이 그저 그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었기에 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놀랍게도 허물어진 몸과 마음이 서서히 깨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습관처럼 실천에 옮기는 일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임을 깨달은 저자는 각자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소개했고, 예상치 못한 큰 호응을 얻었다. 긍정적인 마음, 균형 잡힌 감정, 뒤를 돌아보기보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키워주는 주문,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담긴 신기하고 강력한 힘을 이 책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왜 ‘나를 좋아한다’ 또는 ‘나를 아낀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와 같은 비슷한 표현을 번갈아 사용하지 않고 꼭 ‘나를 사랑한다’고 해야 할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가치, 의미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인다. 어떠한 해석이나 의식적인 생각 없이 그냥

듣기만해도 무의식적으로 온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것, 마법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은 사랑 밖에 없다. 저자는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이 아니어도 큰 상관이 없다고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4단계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그 길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 볼 수 있다.

1단계는 평소에 머릿속에 자동 재생되어 생각을 지배하는 무수한 장면들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아주 인상적이었던 지나간 일들이 재생되면서 그 때 느낀 감정까지 불러 일으키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생각이 아닌 ‘기억’이 뇌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다 좋은 순간들, 행복했던 기억들이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와 정반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저자는 감정을 동반하는 이 기억들 대신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알아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기억이 뇌에 만들어내는 깊은 고랑 대신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과 목표가 뇌에 새로운 길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2단계 명상으로 이어진다. 틈틈이 나를 사랑한다고 되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몇 분쯤 시간을 내어 집중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 저자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저 멀리 하늘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내린다고 상상하면서 깊이 호흡하며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떠올려볼 것을 권한다. 3단계 거울보기에서는 5분간 거울로 두 눈을 응시하면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4단계는 평소에 다른 사람, 주변 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날 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감정을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으로 스스로를 향한 사랑을 재차 확인한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자기 성장의 기록이자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모두가 시도해볼 수 있는 명상 가이드로, 작지만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확실한 길을 알려주는 귀중한 조언이 담긴 책이다.

<목차>

1부. 나를 사랑하라

2부. 매뉴얼

3부. 희생자에서 영웅으로

<저자 소개>

카말 라비칸트(Kamal Ravikant)는 실리콘 밸리에서 기업가, 투자자로 활동해 왔다. 미군 보병 출신으로 티베트 달라이라마 수도원의 명상 활동에도 참여했다.

제목 : EIGHT DAYS AT YALTA

가제 : 알타에서의 8일: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원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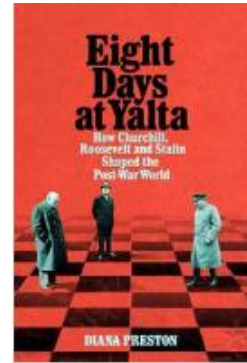
저자 : Diana Preston

출판사: Picador

발행일: 2019년 10월 17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세계사



★ “메마른 외교에 생명을 불어 넣은 책. 리바디아 궁전에서 일어난, 세계 정세를 바꾼 사건들을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면밀히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 『Europe: A History』의 저자 노먼 데이비스

6·25 전쟁으로 한반도에서 동족간의 비극적인 갈등이 극에 달한 1945년, 그보다 4개월 여 앞선 2월 초 흑해 연안의 항구도시 알타에 당시 세계 최정상으로 불리던 세 명의 지도자가 모인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 소련의 스탈린은 이곳에서 8일간 ‘알타 회담’으로 명명된 역사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막강했던 나치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자 이 지루하고 파괴한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알타 회담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 회담은 나치 독일은 물론 유럽연합의 형성과 동유럽, 발칸 반도, 그리스를 비롯한 이후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알타 회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2005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가 알타 회담을 1938년에 체결된 뮌헨 조약, 그리고 나치 독일이 소련과 체결한 협정과 비교하면서 알타 회담이야말로 유럽을 분열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역사상 가장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한 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힘없는 작은 국가들의 자유를 마음대로 협상하고 좌지우지하려는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역사가인 저자는 2차대전 이후의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준 이 8일간의 회담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그러한 평가를 재분석한다. 세계 무대에서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한 대영제국을 결단코 분해시키고자 했던 루즈벨트의 결심, 미국과 영국이 함께 나선다면 소련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굳게 확신했던 처칠의 생각, 그리고 알타에서 나온 모든 견해와 말들을 일일이 모니터링한 양보라고는 모르는 스탈린의 불타는 야심이 회담 이후 일어난 변화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 나라가 각기 나아간 방향이 알타 회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꼼꼼하게 추적한다.

저자는 회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본질적인 특징과 더불어 회담에 참가한 진짜 의도,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기 위해 택한 설득 혹은 협박의 방식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한 상대를 해석하고 그의 의견을 뜻대로 조정하기 위해 취한 노력들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알타에서 8일간

벌어진 일들과 그 뒤에 깔린 정황, 결과를 되짚어보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세 지도자들의 생각과 전략, 선택지, 이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큰 병을 앓고 있었지만 여전히 약삭빠른 면모를 잃지 않았던 수수께끼 같은 인물 루즈벨트와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해진 유창한 언변의 소유자 처칠, 그리고 양보란 없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회담에 임한 스탈린이 이 회담에서 원했던 것, 그것을 얻기 위해 들인 노력을 회담의 결과와 연결 지어 되짚어본 역사적 의의가 저자의 철저한 조사와 생동감 넘치는 글로 정리된 역사서다.

<목차>

머리말

1부. 성격, 정치, 그리고 압력

1장. ‘빅 3’

2장. ‘마침내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2부. 준비, 1945년 초의 몰타와 그 외 다른 곳

3장. 모험가

4장. ‘어둠 속 아주 작고 환한 불꽃 하나’

3부. ‘턱에서 턱으로’, 1945년 2월 3-11일, 알타

5장. ‘집처럼 편안한 곳’

6장. ‘조 삼촌과 멍청이’ (이하 생략, 총 13장으로 구성)

4부. 압박에 의한 동맹, 1945년 2월-8월 (14-16장)

5부. 여파 (17장)

맺음말

<저자 소개>

다이애나 프레스턴(Diana Preston)은 옥스포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역사가, 저술가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LA 타임즈 과학 기술 상을 수상한 『BEFORE THE FALLOUT - From Marie Curie to Hiroshima』와 BBC TV 영화로 제작된 『WILFUL MURDER - The Sinking of the Lusitania』를 비롯해 『A HIGHER FORM OF KILLING』, 『BESIEGED IN PEKING』 등이 있다.

제목 : MANHUNTERS

가제 : 맨헌터스: 현대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검거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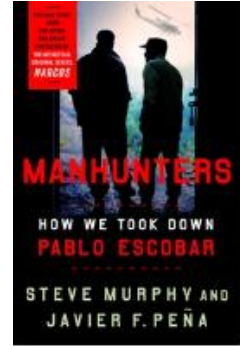
저자 : Steve Murphy, Javier Pena, Isabel Vincent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9년 11월 1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호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판권 계약 / 초판 10만부 발행 예정

★ 미국 마약 단속국 두 요원이 직접 들려주는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추적기. 큰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시리즈 ‘Narcos’의 주요 인물

★ “세계 최초 마약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두 용감한 요원이 들려주는, 나무랄 데 없는 진짜 범죄 이야기. 대단하고, 대범하고, 치열하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pymaster』의 저자 브래드 소어

마약 거래를 위해서라면 방해가 되는 것은 사람이든 무엇이든 다 철저히 없애버린 자, 콜롬비아 ‘메데인 카르텔’의 우두머리인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북미 대륙과 유럽으로 수 톤에 이르는 코카인을 유입시킨 ‘마약왕’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인물이다. 그저 마약을 불법적으로 팔고 이윤을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이 따를 만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자신의 ‘사업’을 지켰던 그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져 세상에 알려졌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세 개의 시즌으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나르코스(Narcos)’도 그 중 하나로, 특히 이 드라마는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여겨진 이 범죄자를 마침내 법의 심판대로 데려온 미국 마약단속국의 두 요원의 피 말리는 추적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 주인공인 하비에르 페냐와 스티브 머피는 4년이나 이어지던 에스코바르 체포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책에서 직접 들려준다. 사상 최대 규모, 가장 유명한 범죄자 추적 작전으로 꼽히는 이 과정에서 한 팀으로 움직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가공된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최근 기밀 해제된 실제 마약 단속국 자료도 함께 제시되어 최악의 테러리스트를 손아귀에 잡기 위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위태로웠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메데인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십대들을 자신의 부하로 데려와 암살자로 키웠다. 그의 손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총잡이로 큰 아이들은 카르텔의 마약 밀매를 가로 막는 자들을 전부 총으로 쏘고 암살하며 콜롬비아 전체를 공포로 떨게 만들었다. 법무부 장관, 대법원 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잔혹한 행태를 고발한 유명 신문사 편집장도 이들의 총구를 벗어나지 못했다. 콜롬비아는

어디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총격과 암살을 막기 위해 공항 등 주요 장소마다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고 거리에도 기관총을 든 병력이 배치되어 시종일관 살얼음판을 걷는 듯 공기 중에 불안감이 가득했다. 미친 짐승처럼 날뛰지만 영악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잡기 위해 콜롬비아 경찰과 정보요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수색대’가 편성되었고 무려 600명에 달하는 요원들이 24시간 에스코바르를 찾아다녔다. 이 책의 두 저자인 하비에르 페냐와 스티브 머피는 이 수색대와 긴밀히 공조했던 수많은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이었다. 특히 1992년 7월부터 에스코바르가 콜롬비아 경찰의 손에 목숨을 잃은 1993년 12월까지 18개월간 벌어진 치열한 추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 책에서는 시시각각 암살범의 손에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오직 이 한 명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치밀한 작전들이 수립되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들려준다. 현장에서 똬 요원들이 맞닥뜨린 난관들, 미국이나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추적했지만 교묘하게 피해온 테러리스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제시된 개발한 전략들이 매우 흥미롭다. 마약과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영웅으로도 불리는 두 저자는 이 국제적인 범죄자를 한 마음으로 추적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전하며 자신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를 끝내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보여준다.

<목차>

머리말

1부 - 4부 (소제목 없음)

결론

<저자 소개>

스티브 머피(Steve Murphy)는 마이애미에서 첩보요원으로 활동하다 콜롬비아에 배치되어 자비에르 에스코바르를 추적했다.

하비에르 페냐(Javier Pena)는 DEA 특수요원으로 일하다 스티브 머피와 함께 4년간 자비에르 에스코바르의 뒤를 쫓았다.

이사벨 빈센트(Isabel Vincent)는 「뉴욕 포스트」 탐사보도 기자로 「뉴요커」, 「뉴욕타임스」, 「타임」지 등에도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BRILLIANT MAPS

가제 : 브릴리언트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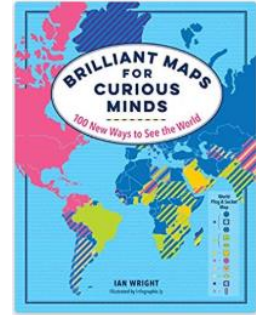
저자 : Ian Wright

출판사: The Experiment

발행일: 2019년 11월 1일

분량 : 208페이지

장르 : 교양



* 독일(경매),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판권 계약

특별히 지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지도를 볼 일이 학창시절 지리나 세계사를 공부할 때가 마지막일 것이며, 그 이후에는 책을 읽다가,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목적지 근처와 경로를 찾아보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대다수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게 된 후, 지도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왔다. 너무 크고 보기도 힘들어서 넓은 벽에 걸려 있던 지도도 디지털화되어 각자의 필요에 맞게 언제든 열어볼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영토 안에 강이 하나도 없는 나라도 있을까? 있다면 어디일까? 북한 대사관이 있는 국가는? 운전자가 차량 왼쪽에 앉는 나라와 오른쪽에 앉는 나라는 각각 어디일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의문들은 물론, 여성이 리더인 나라, 맥도날드가 한 곳도 없는 나라, 아직도 야생 환경에서 사자가 나타나는 나라와 같은 독특한 의문도 지도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에서 런던으로 이주한 뒤 지하철 노선도 전체를 걸어서 일일이 이동해봤다는 저자는 그 이례적인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브릴리언트 맵’라는 웹 사이트를 만들었다. 당시 갓 개발된 스마트폰의 구글 지도와 1931년에 최초로 등장한 지하철 노선도의 장점을 하나로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떠올린 것이다. 바로 지리적 정확성을 희생하더라도 한 눈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온라인으로 언제든 열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저자의 웹 사이트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350 종의 지도를 게시했고 총 방문자 수가 1,500만 명에 이를 만큼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저자는 웹 사이트에 게시된 지도 중 100종을 추려 사람과 인구, 종교와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이 책에서 소개한다. 각 지도에 담긴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마치 퍼즐을 풀듯이 한창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생각하게 되면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이전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풍성하게 얻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책에 실린 지도들 중 ‘유럽 각국에 사는 시민들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적’을 보여주는 지도는 ‘브릴리언트 맵’ 사이트에서 방문자 수도 가장 많고 댓글도 가장 많은 지도에 속한다. 언뜻 보면 유럽 지도에 웬 자그마한 국기들이 잔뜩 꽂힌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의외의 사실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된다. 독일의 경우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적이 터키인이고 프랑스의 경우 모로코인인 것을 비롯해 생각보다 많은 유럽 국가에 무슬림들이 인구수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그 놀라운 사실 중 하나다. UN이 공식 발표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도라 ‘그럴 리 없어!’라고 외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 저자는 이렇게 평소에 각자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정보를 지도 한 장이 싹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인포그래픽화 된 지도들의 매력으로 꼽힌다고 설명한다. 그 외에도 북한 대사관이 설치된 국가들의 지도와 북한에 설치된 해외 대사관을 나타낸 지도를 비교하면 그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재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미국의 최근 대선 결과를 여러모로 분석한 흥미로운 지도들과 ‘잉글랜드 vs. 대영제국 vs. UK’를 비교한 역사 지도, ‘나치가 2차대전에서 승리했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작성된 세계의 모습 등 제목만으로도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지도들을 볼 수 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눈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인포그래픽 지도 100종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사람과 인구 (1-15)

종교와 정치 (16-20)

힘 (21-26)

문화 (27-33)

풍습 (34-43)

친구와 적 (44-55)

지리 (56-69)

역사 (70-82)

국가 정체성 (83-88)

범죄와 처벌 (89-93)

자연 (94-100)

<저자 소개>

이언 라이트(Ian Wright)는 인터넷 지도정보 제공 사이트 ‘Brilliant Maps’을 운영 중이다. 걷기를 좋아해서 201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런던 지하철 노선을 전부 걸어서 이동했다.

제목 : NO BULLSH*T LEADERSHIP

가제 : 거품 뺀 리더십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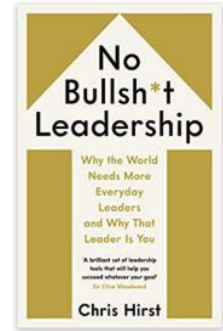
저자 : Chris Hirst

출판사: Profile Books

발행일: 2019년 5월 2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경영



★ 헝가리 판권 계약

★ 「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이 달의 비즈니스 서적’ – “리더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직설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

★ “리더십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 – 「이브닝 스탠다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만 리더일까? 조직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명문 경영대학원 학위를 반드시 따야 할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기업, 또는 스티브 잡스처럼 회사를 엄청난 성공으로 이끈 비범한 리더들이 활용한 전략과 리더십은 다 배우고 익혀야 할까? 쏟아지는 리더십 관련 서적이나 ‘위대한’ 리더들을 칭송하고 조목조목 분석한 정보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리더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인원을 통솔하는 사람도 리더이지만 주말마다 모이는 축구팀 주장도 리더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일생을 걸고 도전할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함께 할 사람들과 끊임없이 의논하고 고민한다. 기업가이자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저자는 전체의 0.0001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명한 리더들이 아닌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리더이며, 경영대학원이 즐겨 하는 사례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을지언정 리더십의 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강조한다.

상명하달 방식으로 리더 한 사람이 조직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구시대적 방식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만큼, 조직의 규모나 산업 유형을 막론한 모든 리더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이 시급하다. 저자는 이 책에 바로 그 지침을 담았다. 저자가 직접 체험하고 부딪히면서 깨달은 실용적인 팁이 좀 더 나은 전략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제시된다. 어느 리더십 지침서처럼 ‘실패하지 않는 전략’ 같은 건 없다는 단호한 선언대로, 저자는 리더에게 실패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이야기한다. 실패는 리더가 반드시 거쳐야 할 일종의 관문이며, 그 뼈아픈 체험에서 깨달은 것들을 다시 일어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저자는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인 설명으로 모든 종류의 그룹, 혹은 조직을 이끄는 방법을 단계별 매뉴얼로 제공한다.

연구와 실험 결과에 대한 과도한 분석을 피하고 리더 자신은 물론 구성원 전체의 삶과 커리어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십 전략이 소개된다. 소규모 사업체부터 지역 단체, 학교, 스포츠 팀, 다국적 기업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 원칙에는 특히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리더’라는 의미에 걸맞게 사람들이 자연스레 따르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두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핵심이 명확히 담겨 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누구든 뛰어난 리더 역할을 해내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총 정리되어 있는 지침서다.

<목차>

서문 - 클라이브 우드워드 경 / 머리말

1. 당신은 리더입니까?
2. 어디로 리드해야 하나?
3. 그곳으로 가는 방법: 결단력
4. 문화
5.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것
6. 에너지와 회복력
7. 스스로를 리드하는 일
8. 변화를 이끄는 일
9. 결론

<저자 소개>

크리스 허스트(Chris Hirst)는 마케팅 서비스 업체 ‘Havas Creative Network’의 CEO를 맡고 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유리 공장에서 일하다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마치고 기업가가 되었다. 2018년 이브닝 스탠다드 선정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되었으며 ‘산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CEO’ 순위에서도 3위에 올랐다. BBC 뉴스, 스카이 뉴스 등에 다수 출연했다.